철책선 걷히고 생명의 길로 거듭나는 꿈을 꾸다

평화누리길 고양 첫째길(행주산성~행주대교~삼성당마을~섬말다리~호수공원 10.1km 구간, 2시간 40분 소요)과 둘째길(호수공원~킨텍스~장월평천~심학산 입구~파주출판단지 13.2km 구간, 3시간 30분 소요)은 지난해 구간 변동이 있었고, 구간 이동에 다소 불편한 점들이 발견돼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있는 길이다.

또한 도심을 관통하는 길이 있어 흙길을 걷는 트레킹 개념과는 다소 멀어진 구간이 많다. 더욱이 이동구간 내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평화누리길의 다양한 표지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 구간을 이동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주요 포인트를 찍어서 중요 지점을 집중적으로 감상하는 것이다.

행주산성이 기점인데 행주산성을 안 보고 갈 수 없고, 호수공원 또한 공원 옆 농로를 거쳐

개성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파주.

자유로 서울 방면(왼쪽)과 자유로 고양 방면.

일부 구간을 경유하게 돼 있는데 호수공원 전체를 그냥 지나칠 수 없으며, 심학산도 둘레길을 거쳐 파주출판단지로 내려오게 되어 있으나 심학산 정상의 낙조를 안 보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렇듯 도보여행이란 여행자의 주관에 따라 자유롭게 발길 닿는 대로 가는 것도 좋으니, 바로 이 구간이 그러하다.

또한 이 구간을 걷다 보면 산악자전거 투어를 즐기는 여행객도 곧잘 만나게 되는데, 도심구간을 빠르게 지나치는 대안으로 자전거 투어를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호수공원의 자전거길은 환상적이고 장월평천의 농로길은 한적하며 심학산 둘레의 산길은 쾌적하고 파주출판단지의 다양한 건물 감상에도 자전거가 제격이다.

상상을 더 해보면, 제일 좋은 것은 자유로 옆 철책선 구간이 개방되어 한강변 습지를 고라니와 오소리, 물새들과 함께 거닐며 한강의 맑은 물과 고양시의 기름진 흙, 사람들의 건강한 숨결이 함께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통일이 되면 철책선이 걷히고 평화누리길은 생명의 길로 거듭날 것이지만, 당장이라도 자유로의 평화누리길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곳으로 구간조정이 되면 원이 없겠다.

권율 장군과 행주산성으로 시작하는 고양 첫째길

평화누리길 고양시 제1코스는 개략적으로 행주산성에서 출발하여 행주대교 북단을 통과해 토당동 벌판을 지나 섬말다리를 건너 호수공원 선인장 전시관까지 걷는 길이다. 행주산성에서 출발하니 먼저 행주산성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임진왜란 3대첩지 중 하나인 행주산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잘 알고 있겠지만, 이미 아는 역사적 사실도 막상 두 발로 일일이 걸어보며 확인해가는 재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시간여행 같은 느낌을 준다. 바로 여기에 걷기여행의 묘미가 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권율 장군이 46세의 적지 않은 나이에 무과가 아닌 문과에 급제한, 문자 그대로 문무를 겸비했던 장군이라는 사실이나 행주산성 싸움이 7차례에 걸친 왜적의 침공을 물리친 치열한 전투였다는 사실 등이 그러하다.

정상에 서 있는 행주대첩비는 바로 밑의 1602년에 세워진 행주대첩비와 위치가 뒤바뀌어 있는 것에 의문이 생겨 자세히 읽어보니 당시 대통령의 분부를 받들어 1970년에 문화공보부

행주산성 전경.

에서 세웠다고 한다. 그 시절의 정치문화가 떠올라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행주산성에서 나와 누리길 이정표를 찾느라 조금 헤맨 후 주차장 왼쪽 계단 밑에 세워져 있는 고양 첫째길 10.1km 이정표를 발견해 오늘의 트레킹을 시작한다. 장어구이집을 비롯한 식당이 모여 있는 행주나루터 쪽으로 나아가고, 권율 장군을 모신 사당인 행주서원을 지나 행주대교 아래를 지나가면 한강이 보이면서 철책선이 나타난다. 강변은 온통 철조망으로 둘러쳐져 있고, 녹슨 철조망은 여기가 다시 평화누리길임을 알려준다.

권율 장군 동상(위)과 행주대첩비.

잠시 길을 따라 걸으면 자유로 아래 굴다리를 지나 넓은 들판이 나타나고, 이 들판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자유로와 제2자유로가 뻗어 있다. 2개의 자유로보다 '두 발로 걷는 것이 제일 멋진 자유로가 아닌가' 생각하며 앞으로 나아간다. 리본과 누리길 표시를 찾는 데 한참 애를 먹은 후 오른쪽 제2자유로 다리 아래 터널 방향으로 길 표시가 된 전봇대를 겨우 발견했다. 리본과 길 표지판이 너무 퇴색하고 색이 바래서 보완해줘야 할 것 같다. 터널을 지나니 다시 더 넓은 들판이 나타난다.

삼성당마을과 섬말다리, 호수공원으로 이어지는 한강도시 고양

들판과 수로의 둑길을 따라 걷다 보면 주택들이 나타나는데, 바로 삼성당마을이다. 이 마을은 과거에 이곳까지 배가 들어왔었고, 경의선 열차가 지나가면서 마을이 형성된 곳이라고 한다. 마을에는 국수집이 많다. 서로 원조라고 우기는 국수집들을 지나 마을을 빠져나오면 능곡과 일산 백석동을 이어주는 호수로가 나타난다. 평화누리길 약도에 나와 있는 둑방의 벚꽃나무길은 공사차량을 비롯한 차량이 너무 많아 호수로로 가는 것이 경관상으로나 안전성 면에서 더 나을 것 같아 호수로를 걷기로 했다. 봄에는 벚꽃나무길이 더 좋으리라 생각하며 걷다 보니 호수로의 가로수는 거의가 살구나무인 듯한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살구 주워 담기에 바쁜 것을 보고 '저걸 먹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섬말다리 앞.

더 걷다 보니 섬말다리가 나타난다. 왜 섬말다리일까? 섬말이라는 지명이 많으니 아마도 물이 많이 들면 섬이 되는 마을일 게다. 섬말다리를 지나 표지목을 찾아 왼쪽 압도길로 들어서니 도라지 꽃밭이 나타난다. 왼쪽의 농장들과 오른쪽의 수로를 따라 걷다 보면 백마로 밑의 토끼굴이 나타나고, 이 길로 쭉 직진하면 호수공원길이다. 호수공원 가는 농로길은 수로를 옆에 끼고 주말농장 밭이 연이어 있는데 도라지, 호박, 가지, 옥수수 등 다양한 텃밭 작물이 자라고 있고, 꽤 많은 사람이 가족과 함께 휴일 주말농장을 가꾸는 모습이 눈에 띈다.

주말농장들을 지나니 드디어 이정표가 호수공원 안을 가리킨다. 들어서자마자 메타세쿼이아 나무들이 양쪽으로 도열해서 반겨준다. 마치 '수고 많았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 같다. 피톤치드를 한껏 들이마시며 걷다 보니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가 끝나는 곳에 고양시 선인장 전시관이 나타난다. 고양시 평화누리길 제1코스의 끝임과 동시에 제2코스의 시작을 알리는 이정표가 나타난다.

호수공원의 노래하는 분수대(왼쪽)와 물놀이를 즐기는 어린이들.

파주출판단지의
낙조(왼쪽)와 출판단지
내 도로.

심학산 정상 전망대.

분수대의 노래와 아이들 웃음소리가 교차하는 고양 둘째길

고양 둘째길은 고양시와 파주시에 걸쳐 있는 코스로, 호수공원 선인장 전시관을 지나 노래하는 분수대에서 파주출판단지까지 13.2km에 이르는 거리다. 이 코스는 도심 아스팔트길을 지나는 구간이 많고, 직접 철책을 보지 못하고 일부 구간에서 멀리 철책을 조망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코스다. 트레킹 코스로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킨텍스, 심학산 정상의 낙조, 파주출판단지의 이채로운 건물들이 주요 관전 포인트다.

객관적으로 평가하자면, 이 코스에서는 우선 표시 이정표를 찾기가 힘들다. 길을 찾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체 길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면, 분수대에서 갈대공원을 지나 현대백화점과 킨텍스 방향으로 가서 백화점 뒤편 육교를 지나면 평화누리길 표시가 나타난다. 쭉 가다 문촌마을 19단지 앞 사거리에서 킨텍스 앞 산책로 방향으로 나가서 고양실내체육관 앞 사거리를 지나 송포동 방향으로 나간다. 비로소 도심을 지나 들판이 보이는 대화동 농업체험공원을 지나 대화공영차고지 쪽으로 가서 장월평 들판 쪽으로 간다. 대화1교를 지나 뚝길을 따라 걷다가 덕이교를 지나 오른쪽 제방길을 따라간 후, 덕이2교를 건너 도로를 따라 올라가면 오른쪽으로 신원자동차학원 담을 끼고 골목길을 벗어나며 이어서 제2자유로 굴다리가 나온다.

교통 안내

▶**행주산성(출발지)**
- 지하철 3호선 화정역 하차 마을버스 011 012번 승차 행주산성 하차
- 광역버스 9707 좌석 1008 1082 87-3 870 921 행주내동 하차

▶**파주 이채사거리(도착지)**
- 지하철 2호선 합정역 하차 버스 2200 200번 / 지하철 3호선 대화역 버스 200번
- 경의선 운정역 마을버스 087번 / 금능역 마을버스 078번
- 콜택시 전화번호 : 첫째길 1588-1382 / 둘째길 1577-2030

학 두 마리가 날아가 숨은 전설이 깃든 심학산

심학산의 낙조가 절경이라는 말을 들은 필자는 실로 그 낙조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심학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심학산 둘레길을 거쳐야 한다. 정상까지는 40분 정도 소요되는데, 둘레길과 표지판은 정돈이 잘돼 있다. 산은 마치 요새와 같아서 참호로 이어진 등산로를 오르면 정상에 정자가 있고, 사방이 탁 트여 가슴이 뚫리는 듯 시원하기 그지없다. 심학산 정상 서쪽에 있는 낙조전망대에 이르면 파주출판단지가 한눈에 들어오고, 한강 너머 김포시의 애기봉과 동쪽으로는 파주시와 교하읍의 전경, 북으로는 개성의 선전마을과 장엄한 한강의 물줄기가 펼쳐진다. 그리고 강변을 따라 자유로가 길게 이어져서 낙조와 함께 강물이 붉은빛으로 일렁인다. 한참을 전망대에서 낙조를 감상하고, 이렇게 좋은 곳을 언제 또 와볼 수 있을까 생각하며 천천히 어둑어둑해진 산길을 내려온다.

산을 내려와 군부대 담장을 끼고 파주출판단지로 들어서서 이채쇼핑몰 앞에 이르면 오늘의 종착점을 알리는 이정표가 나타난다. 오늘의 트레킹은 두 코스를 한번에 이동하고 표지판을 찾느라 체력이 많이 소모됐지만,심학산 정상의 낙조를 보며 모든 피로를 날릴 수 있었다. G

글 · 사진 최영환(여행기고가)